

자기애 성향에 따른 정신화 능력의 차이*

최 지 혜

송 현 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애적 성격성향에 따라서 정신화 능력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34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그 중 병리적 자기애 척도(PNI) 평균 점수가 2.74점 이상이며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위 및 하위 30%에 속하는 집단을 각각 25명씩 선정하여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신화 질문지(MZQ), 공감 척도(EQ-Short-K), 상위인지 자기애 척도(MAS)를 사용하였고, 성인용 눈으로 마음 읽기 테스트(RMET)를 번안하여 포함하였으며, 카툰 정신화 능력 측정도구(A novel cartoon-based task)를 원저자로부터 승인 받아 실시한 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MZQ, MAS, 카툰 도구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로 살펴봤을 때, 자기애적 성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전반적인 정신화에 실패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 자신 및 타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정교하게 정신화 하는 능력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자기애 성향, 정신화, 공감

* 본 연구는 최지혜(2016)의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송현주 /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 (01797)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 / E-mail : jayoo1004@swu.ac.kr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게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며 타인을 통제하고 착취적으로 관계를 맺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하위 집단이 있다.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V)에서는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자기애적 성격장애’라는 범주로 구분한다. DSM-V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탁월함에 대한 공상을 하며, 타인에게 감정이입 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단지 칭찬과 특별한 대우를 받기만 원하는 거만하고 오만한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하고 효율적으로 기능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곤 한다. 하지만 내면에는 자신에 대해서 만성적인 불확실감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고, 타인들과도 깊이 있는 형성하지 못한 채 내적으로 왜곡된 관계를 맺고 있다. 감정도 분화되어 있지 않아 정서가 피상적이고,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슬픔, 애도와 같은 진실한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Kernberg, 1985).

그동안 이 같은 자기애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Akhtar와 Thomson (1982)이 자기애가 웅대성 및 취약성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서로 다른 임상적 특징을 띠는 하위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제안한 이후, 많은 연구들이 자기애의 유형을 나누어 진행해왔다. 그러나 자기애의 하위 유형의 명칭 종류가 50여개가 넘을 정도로 명칭 및 분류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Cain, Pincus,

Ansell, 2008). 이같이 자기애의 유형을 나누는 것이 그 속성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 한편, 장애의 핵심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본 것이다(Miller & Campbell, 2008; Pincus & Lukowitsky, 2010). 때문에 최근 연구들은 자기애의 병리적 측면의 핵심적인 특성은 과장된 자기표상에 집착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웅대성(grandiose)과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만 의존하며 그 시도가 좌절될 때 수치심을 느끼는 취약성(vulnerability)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Pincus et al., 2009; Horvath & Morf, 2009; Wink, 199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 성향을 특정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보다는 핵심 특성인 웅대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병리적 자기애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자기애적 성격 형성의 원인에 대해 Lasch(1979)는 산업화 이후 미국 사회 내 개인주의적 풍조가 나르시시즘을 부추기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큰 맥락으로 보면 자기애적 성격이 발달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일조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냉담한 혹은 과보호적인 양육으로 인해 자기애적 성격구조가 형성된다(Kernberg, 1985; Kohut, 1971). 특히 애착 이론에 따르면,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와 회피-무시형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며(Bowlby, 1988/2014),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도 이들이 주요 애착 대상과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Diamond et al., 2014; Meyer & Pilkonis, 2012; Bennett, 2012). 친밀감 있는 관계를 위해서는 자기 정서 인식 및 조절 능력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 등이 필수

적인데, 불안정한 애착 관계 내에서는 이를 습득하는 것이 제한적이다(Sroufe, Duggal, Weinfield, & Carlson, 2000; Panfile & Laible, 2012). 자기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소망 욕구 등을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 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지지적이지 않은 관계나 쉽게 깨어지는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Bateman & Fonagy, 2006; Sharp et al., 2016; Leslie & Susan, 2004; Sroufe, Carlson, Levy, & Egeland, 1999). 이로써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 또한 성장과정에서 깊이 있는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내적인 능력들을 체득하고 발달하는 것이 부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Fonagy(1991)는 초기 애착 관계 내에서 정신화(mentalization)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신화란 사회 인지의 한 요소로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 상태에 초점을 두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대개 전의식수준에서 일어나며 상상에 기반을 둔 정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Bateman & Fonagy, 2006). 정신화의 개념은 애착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정신화의 발달은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기반으로 발달된다. 더불어 이 같은 정신화 능력은 대인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Fonagy, Steele, Steele, Moran, & Higgitt, 1991). 정신화는 역동적이고 다면적 차원의 능력으로(Bateman & Fonagy, 2013), 암묵적-자동적/외현적-통제적(implicit-automatic/explicit-control), 내적초점/외적초점(internally focused/ externally focused), 자기지향/타인지향(self-oriented /other-oriented), 인지적/정서적(cognitive/affective) 등과 같은 양극의 특성을 가지고 조직화하여 특징지을 수 있다

(Fonagy & Luyten, 2009).

먼저 암묵적-자동적/외현적-통제적(implicit-automatic/explicit-control) 정신화에서 암묵적-자동적 정신화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본능적 과정으로,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지각되는 측면이며, 비언어적이고 비성찰적인 과정이다. 반면 외현적-통제적 정신화는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과정으로 언어적이며 성찰적인 과정이다(Fonagy & Luyten, 2009, Satpute & Lieberman, 2006). 두 번째로 내적 초점(internally focused)/외적초점(externally focused) 정신화 차원의 경우, 내적 초점 정신화는 자신과 타인의 내적 상태인 사고, 감정 욕구 등에 집중하는 능력인 반면, 외적 초점 정신화는 표정, 행동 같은 외적 특성을 바탕으로 정신화 하는 것을 말한다(Bateman, Bolton, & Fonagy, 2013). 세 번째 차원은 자기지향(self-oriented)/타인지향(other-oriented) 차원으로, 감정, 사고, 동기, 의도, 신념, 욕구, 바람 등의 정신 상태에 대해 정신화를 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인지 타인인지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 측면이다(Choi-Kain & Gunderson, 2008). 마지막으로 인지적(Cognitive)/정서적(Affective) 차원이 있는데, 인지적 정신화는 신념, 유추, 조망수용 등의 과정을 일컫는 반면에 정서적 정신화는 정서적인 공감, 주관적인 자기 경험,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정신화 하는 것을 일컫는다(Bateman, Bolton, & Fonagy, 2013). 타당하고, 유연하며, 복합적인 정신 상태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으려면 온전한 인지적인 기술이 요구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지적 영역에 관한 추론과 정서에 대한 통찰이 통합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Choi-Kain & Gunderson, 2008).

이처럼 정신화의 개념이 정교화 되면서 많

은 연구자들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질문지, 실험, 인터뷰, 투사검사 등을 바탕으로 보다 타당하게 측정하고자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수림, 이문희, 2014). 예를 들어, Reflective Functioning Scale(Fonagy et al., 2016),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Fonagy et al., 1991), Metacognition Assessment Scale(Semerari et al., 2003), Reading Mind in the Eyes Test(Baron-Cohen, Wheelwright, Hill, Raste, & Plumb, 2001), Movie for the Assessment of social Cognition(Dziobek et al., 2006) 등과 같은 도구들로 다면적인 정신화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사회 인지를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와 척도들이 정신화 능력의 서로 다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정해진 한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합적 개념인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채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광범위한 심리 측정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신화 능력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상황 맥락 내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측정 시에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Bateman & Fonagy,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척도인 정신화 질문지(MZQ), 공감 척도(EQ-Short K)를 바탕으로 정신화 능력을 측정함과 동시에 사진, 만화, 이야기 등의 다양한 자극을 제시하여 자신 및 타인의 정신화 하는 양상을 측정하는 성인용 눈으로 마음 읽기 테스트(RMET), 상위인지 자각 척도(MAS), 카툰 정신화 능력 측정 도구(A Novel Cartoon-based task)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같은 도구들을 선정한 이유로는 먼저 정

신화 질문지(MZQ)의 경우,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정신화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지로 전반적인 정신화의 실패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도구이다(Hausberg et al., 2012). 공감 척도(EQ-Short-K)는 정신화의 다각적인 차원 중 내적 초점 차원을 측정할 수 있으며, 성인용 눈으로 마음 읽기 테스트(RMET)는 외적 초점 차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선정하게 되었다(Bateman & Fonagy, 2012). 더불어 상위인지 자각 척도(MAS)는 자신의 내적 경험을 한 발 물러서서 보는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이다(김순영, 배성만, 주은선, 2015).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정신 상태에 접근하고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특정한 측면에만 제한적으로 초점을 두려고 하며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이에 상위 인지 능력(metacognition)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Dimaggio et al., 2002; Dimaggio, Lysaker, Carcione, Nicolo, & Semerari, 2008).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감정을 유발한 생각을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상위인지 자각 척도(MAS)를 통해 이들의 자기 지향적인 정신화 능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카툰 정신화 능력 측정 도구(A Novel Cartoon-based task)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인지적 및 정서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Brüne, Walden, Edell, & Dimaggio, 2015), 이를 활용하여 타인 지향적인 정신화 능력을 다각도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정신화 연구의 큰 흐름 중 하나는 정신화 능력의 손상이 다양한 정신 장애의 발생과 관련 있음을 찾아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반건

호, 2013). 정신화 손상은 이전 DSM 체계의 축I과 축II에 속하는 병리들의 심각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ouchard et al, 2008), 성격장애, 정신증적 장애, 우울, 자폐, 섭식장애 등의 병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최근 연구들에서 밝혀졌다(Bateman & Fonagy, 2015; Brent, Holt, Keshavan, Seidman, & Fonagy, 2014, Innamorati et al., 2017; Palmer, Seth, & Hohwy, 2015). 정신화 손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Bateman & Fonagy, 2006; Fonagy & Luyten, 2009). 이들은 유아기 때 양육자의 적대적이고 무기력한 양육, 학대, 외상적 경험 등으로 인해 비 조직화된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자신과 타인의 마음 상태를 읽는 정신화 능력 발달에 전반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Fonagy, Target, & Gergely, 2000, Bateman & Fonagy, 2013). 정신화 능력이 다면적인 개념이다 보니 경계선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성격 장애까지 확장하여 특정한 측면의 정신화 문제들과 관련 지어 각각의 성격장애 유형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Antonsen, Johansen, Rø, Kvarstein, & Wilberg, 2015).

일반적으로 자기에적 성격장애는 자신에 대한 과대성, 타인에 대한 감정 이입이 결여, 승배를 요구하는 모습이 핵심적인 특징인 것으로 묘사된다. 오만한 모습 이면에 이들의 실제 자기(self)는 상당히 취약해 주변 상황에 쉽게 영향 받는 불안정한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신체적 및 정서적 상태를 구별하여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감정을 명명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에 취약한 자존감을 보호하고자 자기 통제적인 방어 전략으로 회피적인 태

도를 고수하며, 자신에 대한 주변의 반응에 매우 과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onningstam, 2017, Horvath & Morf, 2009; Sakellaropoulo & Baldwin, 2007). 이처럼 취약한 자기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감정, 욕구, 생각, 동기 등에 대한 진솔한 공감 능력 또한 부족하며, 공감 하려는 의지와 동기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Baskin-Sommers, Krusemark, & Ronningstam, 2014). 의미 있고 중요한 대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도 냉담한 태도를 취하며, 친밀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Kealy, Ogrodniczuk, Joyce, Steinberg, & Piper, 2015). Dimaggio와 Atina(2012)는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관계에 대해 무심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기만적이고 불안한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들이 언젠가 알아차리게 될 것을 염려하며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타인으로 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거절당하고, 비판받고, 외면당하는 것에 대해 상상 하면서 결국에는 고립감, 수치심, 우울, 분노 등의 정서적 어려움도 함께 경험하기 쉽다(박경순, 2011; 백승혜, 현명호, 2008).

정신화는 우리가 느끼는 ‘자신’ 및 ‘타인’의 주관적인 상태와 정신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암묵적이고 외현적인 과정이며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현상이다(Bateman & Fonagy, 2013).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들의 정신 상태에 대한 신념을 점진적으로 형성해 나가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정신 상태 또한 이러한 신념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정신화 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대인 관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 기술과 관련된 요인이며, 치료 장면에서도 치료자 및 내담자

각각의 정신화가 상호작용 하며 치료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이수림, 이문희, 2014). 앞서 연구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기에적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현상학적으로 자신 및 타인과 온전히 접촉하고 관계 맺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는 바, 그 기저의 정신화 과정에 있어 손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탐색을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은 바,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자기에적 성격 성향에 따른 정신화 능력의 차이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연구 가설과 이를 측정하는 도구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높은 자기에 성향 집단은 낮은 자기에 성향 집단과 비교해 전반적인 정신화에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정신화 양상을 측정하는 정신화 질문지(MZQ)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 가설 2. 높은 자기에 성향 집단은 낮은 자기에 성향 집단에 비해 내적 초점 정신화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내적 초점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감 척도(EQ)에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 가설 3. 높은 자기에 성향 집단은 낮은 자기에 성향 집단에 비해 외적 초점 정신화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외적 초점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눈으로 마음 읽기 테스트(RMET)에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 가설 4. 높은 자기에 성향 집단은 낮은 자기에 성향 집단에 비해 자기 지향적 정신화 능력이 부족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자기 지향적 정신화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상위인지 자각 척도(MAS)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 가설 5. 높은 자기에 성향 집단은 낮은 자기에 성향 집단에 비해 타인 지향적 정신화 능력이 부족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타인 지향적 정신화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카툰 정신화 능력 측정 도구(A novel cartoon-based task)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휴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약 3달 동안 실시하였다. 온라인으로 347명의 설문을 실시한 후, 불성실한 응답 2명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병리적 자기에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황선정과 조성호(2015)의 병리적 자기에 척도(PNI) 절단점 연구에서 평균 점수가 2.74 이상이면 병리적 자기에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해당 점수를 기준점으로 두고 집단을 나누어 구성하였다. PNI 점수 2.74 이상에 전체 상위 30%내 속하는 대상들을 자기에 상위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모집자들 중 하위30%에 속하는 대상들을 자기에 하위그룹으로 추출하였다. 이들 중 실험 대상자를 모집하여 남자 대학생 12명, 여자 대학생 13명으로 구성된 높은 자기에 성향 집단 25명, 낮은 자기에 성향 집단 25명으로 집단을 구성

표 1. 높은 자기에/낮은 자기에 성향 집단의 병리적 자기에 척도(PNI) 평균 및 표준편차

자기에 집단	대상자 수	PNI 평균	PNI 표준편차
전체 실험 참가자	50	2.38	1.05
높은 자기에 성향 실험 집단 (PNI 평균 점수 상위 30% 내)	25	3.34	0.41
낮은 자기에 성향 실험 집단 (PNI 평균 점수 하위 30% 내)	25	1.43	0.43

하였다. 나이 범위는 20세~28세, 평균 22.9세 (표준편차 1.98)로 나타났다. 실험 참가자들의 병리적 자기에 척도(PNI)의 전체 평균은 2.38(1.05)이었으며, 높은 자기에 성향 집단의 경우 3.34(0.41), 낮은 자기에 성향 집단의 경우 1.43(0.43)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병리적 자기에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

자기에적 성격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Pincus 등(2009)이 개발한 병리적 자기에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를 양진원(2012)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incus 등(2009)이 고안한 PNI척도는 웅대성과 취약성 2요인에 7개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총 52문항이며, 6점 척도 상에서 0점과 5점 사이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점수는 각 문항 응답 값의 평균을 사용한다. 양진원(2012)이 번안한 한국판 PNI척도는 웅대성(grandiosity)과 취약성(vulnerability) 2요인에 6개 하위요인을 포함한 총 35문항,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번안 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PNI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7 이었

고, 요인별 내적합치도는 웅대성 .90과 취약성 .97로 나타났다.

정신화 질문지(Mentalization Questionnaire, MZQ)

Hausberg 등(2012)이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정신화 질문지(Mentalization Questionnaire: MZQ)를 최현아(2014)가 번안한 한국판 정신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부적 자기 조망(refusing self-reflection), 정서 인식(emotional awareness), 정신적 동등 모드(psychic equivalence mode), 정서 조절(regulation of affect)등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화 능력의 전반적인 실패를 의미한다.

조망(reflection)이란 경험되는 것으로 자신과 타인의 생각, 감정, 동기 등을 성찰하는 능력 또는 의지를 말하는데(Bateman & Fonagy, 2012), 본 연구에서는 거부적 자기 조망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과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 동기 등과 같은 것들을 성찰 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정서 인식(emotional awareness)은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적으로 일어나는 감정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Mayer & Salovey, 1997). 점수

가 높을수록 자신이 느끼는 기분과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왜곡하거나 잘못 인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정신적 동등 모드(psychic equivalence mode)는 2, 3세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사고의 경직성을 뜻하며 정신 상태에 대하여 융통성 없이 이해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다(Bateman & Fonagy, 2006). 자기 정당성에 대해 부적절하게 집착을 하며, 어떤 행동의 이유와 관련하여 근거 없이 확신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Bateman & Fonagy, 2004). 본 연구에서 정신적 동등 모드의 점수가 높게 나타날수록 경직되고 완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서 조절(regulation of affect)은 개인이 어떤 정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Gross, 1998), 본 연구에서는 정서 조절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 조절의 실패를 의미한다. Hausberg 등(2012)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1이었고, 하위 척도에 따라 .54에서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관성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4이었고, 하위 척도에 따른 내적 일관성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56에서 .68로 확인되었다. 해당 질문지를 통해 자기애적 성격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전반적인 정신화 실패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감 척도(Empathy Quotient Short-K)

Baron-Cohen과 Wheelwright(2004)가 개발하고 Wakabayashi 등(2006)이 22문항으로 간편화한 척도로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지영(2012)가 번안한 한국판 단축 공감 척도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

인 구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번안 시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9로 나타났다. 해당 척도로 정신화의 다면적 측면 중 외적 초점(externally focused)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들을 측정하고자 한다.

성인용 눈으로 마음읽기 테스트(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Adult revised version, RMET)

Baron-Cohen, Jolliffe, Mortimore과 Rovertson (1997)이 마음이론에 입각하여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서 눈 부분만 제시한 후, 이것을 보고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고안하였다(Baron-Cohen, Wheelwright, Hill, Raste, & Plumb, 2001). 성인용 눈으로 마음읽기 테스트의 번안은 원 척도의 대표저자 Baron-Cohen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테스트의 내용을 일차적으로 번안한 뒤,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한국인 1명과 역번역을 하였다. 그리고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이 능통한 한국인 1명에게 최종 검수를 받아 번안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각각의 사진을 살펴본 후 사진 속의 사람의 생각 또는 감정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4개 중에 1개를 선택하게 된다. 해당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공감 척도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외적 초점(externally focused) 정신화 능력을 포함하고자 하며, 아울러 다른 차원들의 정신화 능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상위인지 자각 척도(Metacognition Awareness Scale, MAS)

1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검

자는 자신이 제시된 상황에 처한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도록 지시받는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수준을 4가지로 나누어 무작위로 제시되며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고르도록 하는데, 그 감정에 빠져 아무 것도 못하는 제1수준부터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과 그 감정을 유발한 생각을 알아차리는 제4수준으로 되어 있다. 박현정(2005)이 기존의 상위인지 자각 및 대처척도(MACAM)가 인터뷰 척도로 사용과 평가가 쉽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에 착안하여 보다 간편한 측정을 위해 개발한 양적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현정(2005)이 개발한 척도를 김순영, 배성만, 주은선(2015)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위인지 자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최저 점수는 14점이고 최고 점수는 56점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가 .7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8로 나타났다. 상위인지는 정신화와 유사한 측면이 많은 개념으로 (Dimaggio, & Lysaker, 2014), 본 척도를 통하여 자신(self-oriented)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정신화 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카툰 정신화 능력 측정 도구(A novel cartoon-based task)

Dimaggio와 Brune가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여 사용한 도구이다(Brüne, Walden, Edel, & Dimaggio, 2015). 어떤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도록 한 후, 그 상황에 놓여있는 등장인물들에 대해 인지적, 정서적 정신화를 하도록 하여 얼마나 정교하고 복합적으로 정신화 하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원저자들로부터 도구를 받아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카툰

정신화 능력 측정 도구는 여덟 개의 만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작위로 4개를 골라 평가하게 된다. 만화는 두 세 명의 등장인물들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상황으로 구성된다. 이야기는 사회·정서적으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만화는 일곱 개의 장면으로 구성되고, 순서가 섞인 채 제시된다. 참가자들에게 가능한 한 일곱 개의 카드를 정확하고 빠르게 순서를 맞추도록 하며(Cartoon 순서 맞추기), 각각의 인물들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인지적 및 정서적 정신화를 하도록 제안한다(Cartoon 인지적 정신화, Cartoon 정서적 정신화).

피검자가 정확한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데 실패한다면 반응에 대해 '0점'으로 채점하고, 정확하긴 하나 정형화된 응답일 경우 '1점', 정확한 범위 내에서 마음 상태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면 '2점'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정서적 정신화에서 “만화 캐릭터는 첫 번째 그림에서는 슬펐을 것 같고요, 2번에서 4번 그림까지는 더 슬펐을 것 같고요, 5번에서 7번 그림까지는 가장 슬펐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답하면 점수는 '1점'에 해당한다. 반면 “만화 캐릭터는 처음에는 슬펐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주저했을 것 같고, 마지막에는 안도했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보다 상황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2점'을 주게 된다. 채점은 연구자가 1차로 채점을 실시하였고, 이 과제에 대해 교육을 받은 다른 한 명의 심리치료학과 전공 석사생과 함께 평가하여 인지적, 정서적 정신화에 대한 평정자간 일치도(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평정자간 일치하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두 명의 평가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

정자간 신뢰도는 인지적 정신화의 경우 .98, 정서적 정신화의 경우 .97로 나타났다. 해당 도구를 통해 타인(other-oriented)에 대한 인지적 및 정서적 정신화 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휴학 중인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약 3달 동안 실시하였다. 9월부터 10월 초까지 온라인으로 자기애적 성격 척도(PNI), 정신화 질문지(MZQ), 한국판 단축 공감척도(EQ-Short-K)를 실시 한 후, 황선정과 조성호(2015)의 PNI 절단점 연구에 따라 평균 점수가 2.74점 이상이면서 상위30%에 속하는 피험자와 하위 30%에 해당하는 피험자를 추출하여 집단 별 각각25명씩 구성하였다. 10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달에 걸쳐 피험자들을 1:1로 만나 눈으로 마음 읽기 테스트(RMET)와 상위인지 자각 척도(MAS), 카툰 정신화 능력 측정 도구(A novel cartoon-based task)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 분석과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는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애적 성향과 정신화 능력이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높은 자기애 성향 집단과 낮은 자기애 성향 집단 간 정신화 능력에 있어

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자기애 성격 성향과 정신화 능력 상관관계 분석

표 2에 소개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PNI척도와 MZQ척도 전체($r=.72, p<.01$) 및 각 하위유형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37\sim.78, p<.01$). 특히 자기애 하위유형 중 취약성과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r=.51\sim.78, p<.01$). 또 PNI척도와 MAS척도, 카툰 인지 및 정서 정신화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나($r=.30\sim.55, p<.05$), RMET, 카툰 순서 맞추기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EQ척도에서도 자기애적 웅대성과만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42, p<.01$).

높은 자기애 성향과 낮은 자기애 성향 집단 간 정신화 능력 차이 분석

표 3에 나타난 자기애 성향에 따른 정신화 능력 차이 분석 결과, 먼저 MZQ의 경우 전체($t=8.57, p<.001$), 거부적 자기모방(RSR, $t=4.80, p<.001$), 정서인식(EA, $t=4.81, p<.001$), 정신적 동등모드(PEM, $t=7.36, p<.001$), 정서조절(RA, $t=4.8, p<.001$) 모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연구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로, 높은 자기애 성향 집단이 낮은 자기애 성향 집단에 비해 자신과 타인의 생각, 느낌 등을 성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며, 정서를

표 2. 자기에 척도와 정신화 측정 도구들 상관분석

	1	1-1	1-2	2	2-1	2-2	2-3	2-4	3	4	5	6	7	8
1	-													
1-1	.92**	-												
1-2	.97**	.82**	-											
2	.72**	.57**	.76**	-										
2-1	.50**	.42**	.51**	.81**	-									
2-2	.49**	.37**	.53**	.77**	.56**	-								
2-3	.74**	.58**	.78**	.80**	.49**	.45**	-							
2-4	.53**	.42**	.55**	.74**	.47**	.39**	.56**	-						
3	.27	.42**	.17	.08	.34*	-.05	-.01	-.03	-					
4	.00	.11	-.06	-.10	-.08	.05	-.11	-.21	.05	-				
5	-.53**	-.43**	-.55**	-.37**	-.19	-.18	-.54**	-.25	.14	.00	-			
6	-.17	-.21	-.13	-.03	.05	.04	-.17	-.03	-.15	-.06	.31*	-		
7	-.41**	-.30*	-.44**	-.39**	-.28*	-.37**	-.29*	-.29*	-.03	.01	.23	.11	-	
8	-.40**	-.34**	-.40**	-.35*	-.30*	-.30*	-.24	-.26	-.08	-.00	.28*	.10	.85**	-

(* $p < .05$, ** $p < .01$)

1. 병리적 자기에 척도(PNI)/ 1-1. PNI-용대성/ 1-2. PNI-취약성/ 2. 정신화 질문지(MZQ)/ 2-1. MZQ-거부적 자기조망(RSR)/ 2-2. MZQ-정서인식(EA)/ 2-3. MZQ-정신적 동등 모드(PEM)/ 2-4. MZQ-정서 조절(RA)/ 3. 공감척도(EQ)/ 4. 성인용 눈으로 마음읽기 테스트(RMET)/ 5. 상위인지 자각척도(MAS)/ 6. Cartoon순서맞추기/ 7. Cartoon인지적 정신화/ 8. Cartoon정서적 정신화

표 3. 높은 자기에 집단과 낮은 자기에 집단 간 정신화 능력 차이

정신화 측정도구	자기에 집단	높은 자기에 성향 집단	낮은 자기에 성향 집단	t
		M(SD) 전체(N)=25	M(SD) 전체(N)=25	
MZQ	전체	3.42(0.53)	2.25(0.42)	8.57***
	거부적 자기조망	3.30(0.81)	2.22(0.77)	4.80***
	정서인식	3.24(0.81)	2.18(0.74)	4.81***
	정신적 동등모드	3.78(0.59)	2.40(0.72)	7.36***
	정서조절	3.38(0.96)	2.22(0.69)	4.88***
EQ		3.02(0.49)	2.83(0.42)	1.45
RMET		24.36(2.30)	24.93(3.59)	-.65
MAS		34.72(5.82)	39.48(5.14)	-3.06**
Cartoon 순서맞추기		21.24(4.56)	22.56(4.51)	-1.02
Cartoon 인지정신화		10.20(2.55)	13.08(2.29)	-4.20***
Cartoon 정서정신화		8.96(2.42)	11.68(2.52)	-3.88***

(* $p < .05$, ** $p < .01$, *** $p < .001$)

명확하게 인지하여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가 경직되어 있으며 정서조절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Q와 RMET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던 바, 연구 가설2와 3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AS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연구 가설4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t=-3.06, p<.01$). 카툰 정신화 능력 측정 도구에서는 순서 맞추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인지적 정신화($t=-4.20, p<.001$)와 정서적 정신화($t=-3.88,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연구 가설5가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애적 성격 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정신화 능력에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자기애적 성격 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나누어 다양한 측정 도구로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였고, 각 도구 별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화 능력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EQ, RMET, 카툰 정신화 측정도구의 순서 맞추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도구들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그 결과들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정신화의 어려움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MZQ의 경우에 전체 점수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높은 자기애 성향 집단이 낮은 자기애 성향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정신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부적 자기조망, 정서 인식의 어려움, 정신적 동등모드, 정서통제의 어려움 4개 하위요인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 감정, 동기를 성찰하려는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며, 정서 인식 및 조절 능력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와 정서에 접근하여 그것을 다루는 능력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복합적인 이해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특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Dimaggio et al.,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하위요인들 중 정신적 동등모드에서 높은 자기애 성향 집단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Bateman과 Fonagy(2004)에 따르면, 정신적 동등모드는 사고의 경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부의 정신적 현실이 마치 외부 현실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는 것과 같이 지각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이들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며, 관계 내에서 분노,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사고를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Roche, Pincus, Conroy, Hyde, & Ram, 2013; 서수균, 2007). 이들은 부정적 사고와 감정을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으로써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더욱 민감해 지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한편, 내적 초점(internally focused) 정신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EQ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높은 자기애 성향을 가진 집단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표정과 같은 단서를 바탕으로 외적 초점(externally focused) 정

신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RMET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로 보이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먼저 EQ척도의 경우에 “나는 ~을 알 수 있다, 나는 ~을 잘 한다.”라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스스로 공감 능력을 평정하는 척도이므로 실제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앞서 상관분석에서 자기애 하위요인 중 웅대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높은 자기애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지적 능력과 매력,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나 수행, 긍정적 성격 특성 등에 대해 과도하게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Ames & Kammrath,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EQ의 경우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보니 자기애적 성격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및 특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성격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RMET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인지적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밝혀진 선행 연구결과들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겠다(Ritter et al., 2011; Baskin-Sommers Krusemark, & Ronningstam, 2014; Wai & Tiliopoulos, 2012). 자기애적 성격에서 흔히 말하는 ‘공감의 부족’이란,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에 대해 인식하고 파악하려는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공감하려는 동기가 부재한 것에 더 가깝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자기애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타인의 표정을 읽는 것과 같은 일부 정서적인 정보를 다루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신의 취약성이 드러나거나 이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 공감적인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한다(Ames & Kammrath, 2004). 이에 따라 RMET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자기애적 성격 성향을 지닌 사람들도 일부 인지적으로 정서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 측면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PNI척도와 RMET를 사용하여 자기애와 마음읽기 능력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Vonk, Zeigler-Hill, Mayhew, & Mercer, 2012; Vonk, Zeigler-Hill, Ewing, Merner, & Noser, 2015).

한편, 자신 지향(self-oriented) 정신화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MAS척도에서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높은 자기애 성향 집단에서 상위인지 자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인지는 생각을 생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용홍출, 김명운, 황경열, 2006)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 신체적 감각이 자신의 일부분도 아니고 현실을 명확히 반영한 것도 아닌, 그저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종의 정신적인 사건으로 경험하는 것이다(Teasdale, 1999). 이 같은 능력을 측정할 상위인지 자각 척도(MAS)는 MZQ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하위요인 정신적 동등모드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높은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정서적 측면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그것을 일종의 정신적 사건으로 경험하기 보다는, 실재하는 사건으로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암묵적, 외현적으로 인식 및 해석하는 것이 서투를 수 있겠다. 연구자들은 이처럼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의

사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Dimaggio et al., 2002).

정신화의 타인(other-oriented)지향 정신화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카툰 정신화 능력 측정 도구(A novel cartoon-based task)에서는 순서 맞추기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지적 및 정서적 정신화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순서 맞추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자기애적 성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맥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askin-Sommers Krusemark, & Ronningstam, 2014).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 임상군에 속하면서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 인지능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조망수용 능력과 사회적 추론 능력이 통제집단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사회적 상황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고, 자신에 대한 표상을 부풀리기 위해 이용하기 위함일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었다(Vonk et al., 2012; Vonk et al., 2015).

한편, 인지적 및 정서적 정신화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카툰 정신화 능력 측정 도구(A Novel cartoon-based task)는 상황 맥락 내에서 인물이 경험하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 정확하게 추론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복잡적(complex)으로 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지를 채점하도록 한다(Brüne, Walden, Edel, & Dimaggio, 2015). 높은 자기애적 성격 성향을 가진 이들은 등장인물의 생각 및 감정에 대하여 떠올리고 대답을 하도록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타인의 사고, 신념, 감정, 소망 등에 관해 상당히 빈약하고 정교함

이 떨어지는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높았다. 정신화는 단지 다른 사람의 마음상태와 행동의 이유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 외현적 및 암묵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고 복합적으로 표상을 떠올리는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따라서 앞선 결과들을 토대로 종합해 볼 때 높은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정형화된 틀 안에서 외현적으로 타인의 마음상태와 행동의 이유를 추론할 수는 있으나, 낮은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정교하고 풍부하게 표상하는 능력은 다소 결핍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은 타인에 대한 암묵적-자동적 정신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Bateman과 Fonagy(2006)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암묵적-자동적 정신화가 일어나면 그들의 관점과 정서, 기저의 동기를 직관적으로 숙고하면서 마음 상태를 주시하게 되며 조화롭게 상호작용이 진행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 암묵적-자동적 정신화 과정 없이 통제적-외현적인 정신화만 이루어진다면 마치 속 빈 강정과 같이 인간미가 떨어지고, 따뜻함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들에 대해 친밀함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앞서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정서적 공감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하였는데(Lishner, Hong, Jiang, Vitacco, & Neumann, 2015; Ritter et al., 2011), 이것은 타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암묵적-자동적 차원에서 정신화 능력에의 결핍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애적 성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정신화 능력을 다각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주로 경계선 성격장애에 주로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 왔다. 정신화와 다른 병리 및

성격장애들과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 자기애적 성격과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신화 연구의 범위를 보다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신화는 치료적인 요인으로 자기애적 성격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위한 요인을 밝혀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신화 기반 치료(Mentalization-Based Therapy)의 목표는 정신화 능력의 향상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자아를 발달시키고,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며, 안정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Morken, Karterud, Arefjord, 2014; Bateman & Fonagy 2006). 높은 수준의 정신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당한 탄력성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좋은 관계 맺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역경 상황도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Bateman & Fonagy 2013). 이 같은 정신화 기반 치료(MBT)는 경계선 성격 장애를 비롯하여 정신증 환자, 섭식장애, 우울 증상 등의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왔다(이수림, 이문희, 2014). 본 연구에서 자기애적 성격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정신화의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들 또한 정신화 능력에 결함이 있어 자신 및 타인과 왜곡된 관계를 맺고 있는 결과를 확인했던 바, 자기애적 성격에 대한 치료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를 측정하는 카툰 정신화 능력 측정 도구를 도입하여 국내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측정도구를 최초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정신화 능력 측정 시 공감 척도만 사용하거나(문수진 등, 2012), 정서조절 곤

란 척도를 사용해 왔다(이현주, 안명희, 2012).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 질문지(MZQ), 공감 척도(EQ-Short-K), 상위인지 자각 척도(MAS)와 함께 성인용 눈으로 마음읽기 테스트(RMET)를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카툰 정신화 능력 측정 도구(A novel cartoon-based task)까지 활용하여 보다 정신화 능력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여 보다 타당하게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향을 가진 비 임상군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 까지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집단을 구성할 때 자기애 척도 절단점 연구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자기애적 성격 성향을 가진 일반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다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군을 대상으로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여 임상 집단과 일반집단간의 비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기애적 성격 성향 집단을 병리적 자기애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절단점에 따라 성향이 높은 집단을 선별하고, 전체 집단에서 하위 30%에 속하는 피험자들로 낮은 집단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자기애적 성격 성향은 웅대성과 취약성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과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집단을 하위 유형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셋째, 수도권 지역 일부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모든 성인에게 적용하여 해석하기에 한계가 따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자료를

수집하여 일반 성인들에게까지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김순영, 배성만, 주은선 (2015). 상담자의 상담 경력에 따른 상위인지 자각과 포커싱적 태도가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6(2), 157-178.
- 문수진, 오소영, 이원혜, 홍민하, 민정원, 김봉석, 황준원, 우이혁, 반건호 (2012). 청소년 정신화 프로그램의 학생정신건강 증진효과 평가.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23(3), 109-116.
- 박경순 (2011). 수치심(Shame)과 자기에(Narcissism)의 정신분석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0), 889-907.
- 박헌정 (2005). 상위인지 자각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반건호 (2013). 애착이론으로부터 정신화까지: 배경과 임상적 의의. *한국정신분석학회*, 24(1), 9-20.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 경험수준, 분노표현양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4), 1001-1017.
- 서수균 (2007). 자존감과 자기에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양진원 (2012). 병리적 자기에 성향자의 응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여지영 (2012). 한국판 단축 공감척도의 타당화. *한국 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11), 5356-5363.
- 용홍출, 김명운, 황경열 (2007). 역기능적 상위인지, 상위인지적 자각 및 상위기분, 집착, 마음챙김 관련 자기 효능감, SCL-90-R 간의 관계. *재활심리학회지*, 13(1), 54-65.
- 이수림, 이문희 (2014). 상담 및 심리치료 성과의 핵심 요인: 정신화(mentalizing)의 이해와 적용. *인간연구*, 27.
- 이현주, 안명희 (2012).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 능력과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413-434.
- 최현아 (2014). 청소년의 외상 경험과 정신화 능력이 품행장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선정, 조성호 (2015). 병리적 자기에의 선별기준에 관한 연구: 병리적 자기에 질문지의 절단점 확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275-303.
- Akhtar, S., & Thomson, J. A. (198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Psychiatry*, 139, 12-20.
- Ames, R., & Kammrath, K. (2004). Mind-reading and metacognition: Narcissism, not actual competence, predicts self-estimated ability.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suppl. Interpersonal Sensitivity; New York*, 28(3), 187.
- Antonsen B. T., Johansen M. S., Rø F. G., Kvarstein E. H., & Wilberg T. (2015). Is reflective functioning associated with clinical symptoms and long-term course in patients

- with personality disorders?. *Comprehensive Psychiatry*, 64, 46-58.
- Baron-Cohen, S., & Wheelwright, S.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4(2), 163-175.
- Baron-Cohen, S., Wheelwright, S., Hill, J., Raste, Y., & Plumbe, I. (2001). The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revised version: A study with normal adults, and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2), 241-251.
- Baron-Cohen, S., Jolliffe, T., Mortimore, C., & Rovertson, M. (1997). Another advanced test of theory of mind: Evidence from very high-functioning adults with autism or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 813-822.
- Baskin-Sommers, A., Krusemark, E., & Ronningstam, E. (2014). Empathy in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From clin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Personality Disorder*, 5(3), 323-333.
- Bateman, A., Bolton, R., & Fonagy, P. (2013).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 Mentalizing Framework. *FOCUS: The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in Psychiatry*, 11(2), 178-186.
- Bateman, A., & Fonagy, P. (2004).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of BPD. *J Pers Disorder*, 18(1), 36-51.
- Bateman, A., & Fonagy, P. (2006).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practical guide*. Oxford University Press.
- Bateman, A., & Fonagy, P. (2012). *Handbook of mentalizing in mental health practi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Bateman, A., & Fonagy, P. (2013).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Psychoanalytic Inquiry*, 33, 595-613.
- Bateman, A., & Fonagy, P. (2015).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mood disorders: mentalizing as a framework of integrated treat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1(8), 792-804.
- Bennett, S. (2012).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applied to the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of pathological narcissism.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4(1), 45-60.
- Bouchard, M., Target, M., Lecours, S., Fonagy, P., Tremblay, M., Schachter, A., & Stein, H. (2008). "Mentalization in adult attachment narratives: Reflective functioning, Mental states, And affect elaboration compared", *Psychoanalytic Psychology*, 25(1), 47-66.
- Bowlby, J (2014). *존 볼비의 안전기지*. (김수임, 강예리, 강민철 역). 서울: 학지사. (원서 출판 1988).
- Brent, B., Holt, D., Keshavan, M., Seidman, L., & Fonagy, P. (2014).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for Psychosis: Linking an Attachment-based Model to the Psychotherapy for Impaired Mental State Understanding in People with Psychotic Disorders. *J Psychiatry Relat Sci*, 51(1). 17-24.
- Brüne, M., Walden, S., Edel, M. A., & Dimaggio, G. (2015). Mentalization of complex emotion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impact

- of parenting and exposure to trauma on the performance in a novel cartoon-based task. *Comprehensive psychiatry*(in press).
- Cain, N. M., Pincus, A. L., & Ansell, E. B. (2008). Narcissism at the crossroads: Phenotypic description of pathological narcissism across clinical theory, social/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iatric diagno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638-656.
- Choi-Kain, L. W., & Gunderson, J. G. (2008). Mentalization: Ontogeny, Assessment, and application in the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9), 1127-1135.
- Diamond, D., Clarkin, J. F., Levy, K. N., Meehan, K. B., Cain, N. M., Yeomans, F. E., & Kernberg, O. F. (2014). Change in Attachment and Reflective Function in Borderline Patients with and without Comorbi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Transference Focused Psychotherapy. *Contemporary Psychoanalysis, 50*(1-2), 175-210.
- Dimaggio, G., & Attina, G. (2012). Metacognitive Interpersonal Therapy for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d associated perfectionism.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8*(8), 922-934.
- Dimaggio, G., Semerari, A., Falcone, M., Nicolo, G., Carcione, A., & Procacci, M. (2002). Metacognition, States of Mind, Cognitive Biases, and Interpersonal Cycles: Proposal for an Integrated Narcissism Model.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12*(4), 421-451.
- Dimaggio, G., & Lysaker, P. H. (2014). Metacognition and Mentalizing in the psychotherapy of patients with psychosis and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1*(2), 117-124.
- Dimaggio, G., Lysaker, P. H., Carcione, A., Nicolo, G., & Semerari, A. (2008). Know yourself and you shall know the other... to a certain extent: Multiple paths of influences of self-reflection on mindreading.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7*, 778-789.
- Dziobek, L., Fleck, S., Kalbe, E., Rogers, K., Hassenstab, J., Brand, M., Kessler, J., Woike, J. K., Wolf, O. T., & Convit, A. (2006). Introducing MASC: a movie for the assessment of social cognition. *J Autism Dev Disorder, 36*(5), 623-636.
- Fonagy, P. (1991). Thinking about thinking: Some clin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treatment of borderline pati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2*, 639-656.
- Fonagy, P. & Luyten P. (2009). A developmental, mentalization-based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 1355-1381.
- Fonagy, P., Luyten, P., Moulton-Perkins, A., Lee, YW., Warren, F., & Howard, S.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mentalizing: The 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PLOS ONE, 11*(7).
- Fonagy, P., Steele, M., Steele, H., Moran, G. S. & Higgitt, A. C. (1991). "The capacity for understanding mental states: the reflective self in parent and child and its significance for security of attachment", *Infant Mental Health, 12*, 201-218.
- Fonagy, P., Target, M., & Gergely, G. (2000).

-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theory and some evidence. *The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3(1), 103-122.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299.
- Hausberg, M. C., Schulz, H., Piegler, T., Happach, C. G., Klopper, M., Brutt, A. L. et al. (2012). Is a self-rated instrument appropriate to assess mentalization in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Development and first validation of the mentalization questionnaire(MZQ). *Psychotherapy Research*, 22(6), 699-709.
- Horvath, S., & Morf, C. C. (2009). Narcissistic defensiveness: Hypervigilance and avoidance of worthlessn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 1252-1258.
- Innamorati, M., Imperatori, C., Harnic, D., Erbuto, D., Patitucci, E., Janir, L., & Fabbriatore, M. (2017). Emotion Regulation and Mentalization in people at risk for food addiction. *Behavioral Medicine*, 43(1), 21-30.
- Kealy, D., Ogrodniczuk, J., Joyce, A., Steinberg, P., & Piper, W. (2015). Narcissism and relational representations among psychiatric outpatient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29(3), 393-408.
- Kernberg, O. F. (198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asch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American life in an age of diminishing expectation*. New York: Notton.
- Leslie, A., & Susan, G. (2004). *Attachment issues in psychopathology and interven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ishner, D. A., Hong, P. Y., Jiang, L., Vitacco, M. J., & Neumann, C. S. (2015). Psychopathy, narcissism, and borderline personality: A critical test of the affective empathy-impairment hypothe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6, 257-265.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J.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pp. 3-34). New York: Harper Collins.
- Meyer, B & Pilkonis, P. (2012). *Attachment Theory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 Handbook of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oretical Approaches, Empirical Findings, and Treatments. Hoboken, NJ: John Wiley and Sons.
- Miller, J. D., & Campbell, W. (2008). Comparing clinical and social-personality conceptualization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76, 449-476.
- Morken, K., Karterud, S., Arefjord, N. (2014). "Transforming disorganized attachment through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44, 117~126.
- Palmer, C., Seth, A., & Hohwy, J. (2015). The felt presence on other minds: Predictive processing, counterfactual predictions, and mentalising in autism. *Consciousness and cognition*, 36, 376-389.
- Panfile, T. M., & Laible, D. J. (2012). Attachment security and child's empathy: The mediating

- role of emotion regul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8(1), 1-21.
- Pincus, A. L., & Lukowitsky, M. R.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21-446.
- Pincus, A. L., Ansell, E. B., Piementel, C. A., Cain, N. M., Wright, A. G. & Levy, K. N. (2009).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1, 365-379.
- Ritter, K., Dziobek, I., Preisßler, S., Ruter, A., Vater, A., Fydrich, T., Lammers, C. H., Heekeren, H. R., & Roepke, S. (2011). Lack of empathy in patients with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187(1-2), 241-247.
- Roche, M. J., Pincus, A. L., Conrey, D. E., Hyde, A. L., & Ram, N. (2013). Pathological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behavior in daily life.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4(4), 315-323.
- Ronningstam, E. (2017). Intersect between self-esteem and emotion regulation in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implications of alliance building and treatment,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Emotion Dysregulation*, 4:3.
- Sakellaropoulou, M., & Baldwin, M. (2007). The hidden sides of self-esteem: Two dimensions of implicit self-esteem and their relation to narcissistic re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 995-1001.
- Satpute, A. B., & Lieberman, M. D. (2006). Integrating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to neurocognitive models of social cognition. *Brain Research*, 1079(1), 86-97.
- Semerari, A., Carcione, A., Dimaggio, G., Falcone, M., Nicolò, G., Procacci, M., & Alleva, G. (2003). How to evaluate metacognitive functioning in psychotherapy? The metacognition assessment scale and its application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0, 238-261.
- Sharp, C., Venta, A., Vanwoerden, S., Schramm, A., Ha, C., Newlin, E., & Fonagy, P. (2016). First empirical evaluation of the link between attachment, social cognition and borderline features in adolescents. *Comprehensive Psychiatry*, 64, 4-11.
- Sroufe, L., Carlson, E. A., Levy, A. K., & Egeland, B. (1999). Im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01), 1-13.
- Sroufe L. A., Duggal S., Weinfield N., Carlson E. (2000) *Relationship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In: Sameroff A. J., Lewis M., Miller S. M.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Springer, Boston, MA.
- Teasdale, J. D. (1999). Metacognition, mindfulness and the modification of mood disorder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pathology*, 6, 146-156.
- Vonk, J., Zeigler-Hill, V., Ewing, D., Merner, S., & Noser, A., (2015). Mindreading in the dark: Dark personality features and theory of min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7, 50-54.
- Vonk, J., Zeigler-Hill, V., Mayhew, P., & Mercer, S. (2012). Mirror, mirror on the wall, which

- form of narcissist knows self and others best of al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 396-401.
- Wai, M., & Tiliopoulos, N. (2012). The affective and cognitive empathic nature of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7), 794-799.
- Wakabayashi, A., Baron-Cohen, S., Wheelwright, S., Goldenfeld, N., Delaney, J., Fine, D., Smith, R., & Weil, L. (2006). Development of short forms of the empathy quotient (EQ-Short) and the systemizing quotient (SQ-shor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929-940.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원고접수일 : 2018. 01. 31.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2. 21.
게재결정일 : 2018. 02. 27.

Difference in mentalization ability according to narcissistic tendency

Jihye Choi

Hyunjoo Song

Seoul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Therapeutic Technology

This study determined how mentalization abilities differ based on narcissistic personality t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involving 345 students enrolled in universiti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25 of the students marked over the average breaking point, 2.74 in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PNI), and belonged to the top and bottom 30% in narcissistic personality tendencies. To measure mentalization ability, this study used many different types of tools; Mentalization Questionnaire(MZQ), Metacognition Awareness Scale(MAS), Empathy Quotient(EQ-Short-K),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RMET) and A novel cartoon-based task. First, as for MZQ, students with high narcissistic personality tendency showed a lower mentalization ability than did those with low narcissistic personality tendency. The criterion of MAS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with the group having high narcissistic personality tendency conspicuously lacking the ability to recognize their own thoughts and emotions. Meanwhile, EQ-Short-K and RME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and “guessing the right order” in A novel cartoon-based task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Exceptionally, in this task, cognitive and affective mentalization abilit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se results show that those with narcissistic personality tendency have defects in mentalization abilities to recognize and focus on their own or others' mental status, and lack the ability to represent it in a more accurate and detailed manner.

Key words : narcissistic tendency, mentalization, empathy